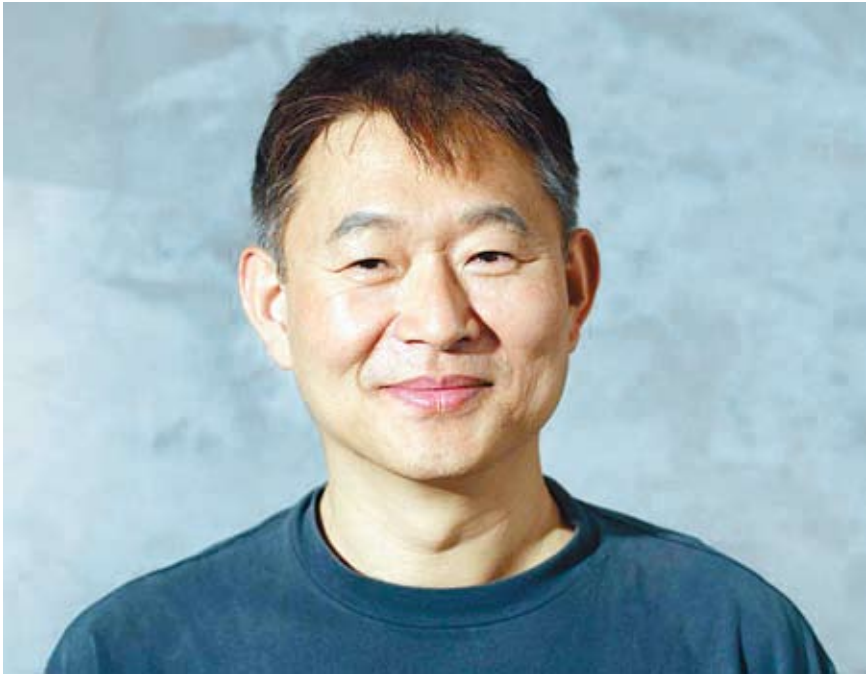


석포제련소 운명 권 환경부에 경북도, 당당한 목소리 내라



낙동강 녹조 주범은 공장제 농장서 나온 ‘농약·비료’
환경단체들, 사실 은폐키 위해 ‘생태 친화적 농업’ 강변
‘낙동강 오염은 상류 석포제련소 때문’ 주장은 이념 프레임
석포주민들 “정치 환경단체들 지역서 물러가라” 시위도

필자는 대구 대경대에서 교수 생활을 한 적이 있다. 낙동강 때문에 온 시민들의 가슴이 멍울져 있는 대구와 경북은 ‘물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고 있는 지자체들이다. 공교롭게도 물의 어려움과 함께 도시의 어려움도 가중돼, 요즘들어 대구·경북은 ‘근로자 평균 급여 최하위’라는 엄청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물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 구미 공단의 많은 업체들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기반을 이전하고, 대구·경북 자체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낙동강이 정말로 공업 시설들 때문에 심하게 얼룩져 있는지는 잘 따져 볼 일이다. 우선 안동댐, 임하댐을 비롯해 낙동강의 다양한 물 관련 시설 인근에는 어마어마한 하천부지가 있고, 여기서는 대규모 농업이 성행하고 있다. 경작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축종과 경종을 망라한다. 밭과 논을 일구는 과정에서 공장제 농업을 지향하며 농약과 비료를 대거 뿌리는 사람들이 있고(농지가 아니기에 ‘농민’이라는 표현은 생략한다), 약 20년간 ‘히트’를 쳤던 유기농을 고집하며 인본이나 돈분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점오염

원들은 매년 낙동강 녹조의 주범이 된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물 관련 시설에 설치됐지만 중과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느린 오염’들 때문에 대구·경북의 물 건강은 만성병을 앓고 있고, 지역도 조금씩 생기를 잃고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대한 문명은 물 주변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대구, 경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하거나 오히려 ‘생태 친화적 농업’이라며 강변해 왔다. 2010년 이후부터 정부의 하천부지 경작 금지 조치가 잇따르자 환경단체들은 “농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전농이나 카톨릭 농민회 등의 단체들과 연대투쟁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런데 정작 공식 농지로 등록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하천부지 농민들에게 별로 감정이 좋지 않다. 그들이 대량 출하하는 농산물 때문에 자신들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오염의 근원은 상류에 있는 봉화군 석포제련소 때문”이라고 이념적인 프레임을 걸어 왔다. 그 역사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간다.

똑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주입시키는 환경 단체들의 여론전 덕분에 꽤 양식있는 지식인들도 이 프레임을 받아들이곤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논리가 성행한다. 지난 10월 2일 봉화군 읍내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 철폐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구성원 100여명(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500명이지만 당일 우천 관계로 많은 인사가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이 집회를 열어 “석포제련소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 5월 환경부 기동단속반으로부터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제련소를 문닫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1300만 영남인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이들의 고정 레퍼토리다.

반면에 진짜 경상북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환경단체의 시위 당일 날 반대편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과도한 행정조치를 반대하는 석포면 주민들 700명의 ‘맞불집회’가 있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일관되다. “외부인들이 석포의 운명을 좌우하지 말라” “정치적 환경 단체가 제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여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 14일 TBC 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정처분은 1차 처분 사항(20일 조업정지)의 범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감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공식 의견을 냈다고 한다. 속사정을 들어보면 대구지방환경청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한계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용병조로 폐수 저장조 세척수를 잠깐 담아 둔 것이 폐수 배출이나 동일하다”는 환경부의 애초 행정조치는 과도한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경상북도는 시민단체의 입장에 휘둘리는 환경부와는 다른 길을 가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이런 당당한 목소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환경 못지 않게 주민들의 삶과 경제적 사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강화되길 바란다.

노봉호 부산경제산업연구원장, 마을재생 전문가

기자수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종합합사를 열어 10월 2일부터 20일간 진행된 국감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밀려 정작 관련 현안이 밀려나 ‘맹탕 국감’이 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제약·바이오 업계 현안으로는 라니티딘 사태와 인보사 사태가 집중 화화를 맞았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올해 초까지 인보사의 세포 변경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해명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인보사의 허가과정이 비정상적인 데다 주성분 세포 변경 확인 과정에서 논란이 된 STR 검사도 식약처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 1년만에 불거진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과 열흘 전에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면 수입완제품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국민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인보사 사태와 라니티딘 사태가 연이어 불거진 것에 대해

바이오 쇼크 이슈는 어디로...

식약처의 허술한 의약품 안전관리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정작 국내 바이오업계에 많은 충격을 줬던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쇼크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해당 업체 관련 이슈들은 복지위 국감 대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는 정도에 그쳤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 국감에서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 현황에 대해 물었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헬릭스미스 관련해 증산위의 경정제 조치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국내 바이오업계는 지난 5월 인보사 사태가 터진 이후 6월 에이지엘비, 8월 신라젠에 이어 지난달에는 헬릭스미스까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미쳤다. 특히 신라젠 쇼크는 바이오 업계 전반은 물론, 코스닥 시장까지 뒤흔들었다. 바이오발(發) 충격에 지난 8월5일에는 오후 2시9분쯤 코스닥 지수가 6.19% 떨어지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이 같은 이슈에 대해 복지위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채 지나간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 이슈에 매몰된 탓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 문제를 두고 치매 의혹을 제기해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의 제1저자 논란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했음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감에서 조 전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가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실상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다뤄진 제약·바이오 이슈는 라니티딘 사태, 인보사 사태 외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기승전조국’에 업계 현안은 거의 묻힌 셈이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비교적 정쟁을 배제하고 일하는 상임위원회로 평가 받던 복지위 국감마저 ‘조국 논란’에 파묻힌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부디 내년에는 제대로 준비된 정책 국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김세미 기자 sam0316@meconomynews.com

기자수첩

“우리금융 경영개입 없다” 약속 깨지나

관치금융의 먹구름이 다시 물러올 기세다. 원원지는 DLF다.

윤석열 금감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인 예금보험공사도 DLF 감사가 끝나면 이사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보다는 모든 책임을 은행에게 묻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사실 DLF 사태는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 잘못도 있지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금융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감위,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미룬 국회 모두의 책임도 있다.

즉, 이번 사건은 은행의 부도덕한 행위로 치부해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

특히 예보 위생백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구는 1년 전 약속을 깨는 행위다.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최중규 금융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개입은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위생백 사장의 발언은 DLF 사고를 계기로 예보가 이사회 재진입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손태승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추천위원회는 11월 말 열릴 확률이 높다.

은행 안팎에선 결국 예보가 이사회 진입 후 인사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임금이 작용한다면 관(官) 출신 외부영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롯데손보는 새로운 이사진으로 관 출신인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과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앉혔다.

일각에선 은행의 손실 책임을 CEO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고 지적한다. 10년 전 KB금융지주 황영기 회

장은 우리는행장 시절 투자했던 CDO·CDS 투자 손실 책임을 안고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투자 손실액만 1조6200억원, 금감원은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그 이후 황 회장은 3년의 법정소송 끝에 무혐의로 명예회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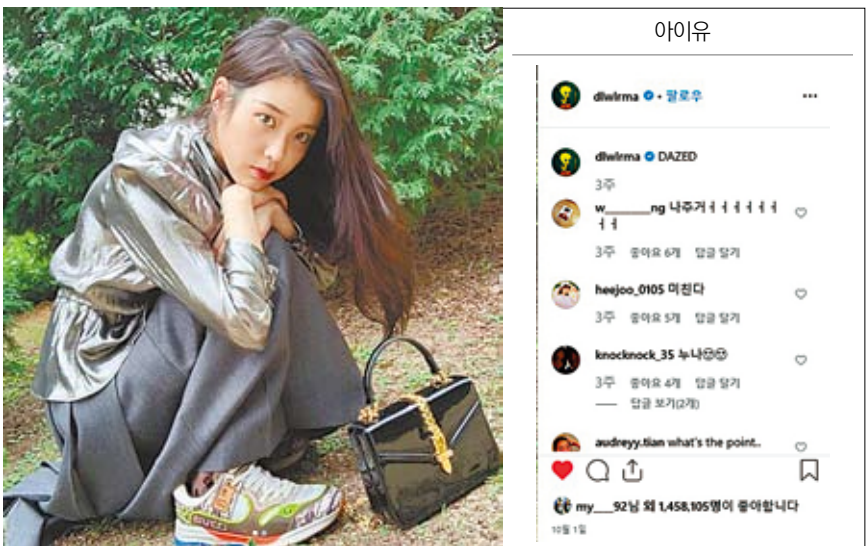
황영기 회장은 2009년 국정감사 자리에도 출석해 “내가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감독당국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내 책임이 없다면 감독당국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독당국은 은행권에 투자는 행 강화를 주문했던 시기다.

10년이 지난 현재, 감독당국은 은행에게 이자이보다 바이자이의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까지 완화하며 길을 터 준 것인데 다시 은행장에게 ‘이자장사’만 하란 꼴이 됐다.

차진형 기자 jinhyung@meconomynews.com

스타 SNS



2019 기해년(己亥年) 11월의 띠별 운세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까지 띠별 운세입니다
사주역학의 만남 라이프비전(www.lifevision.co.kr) 제공



쥐(자, 子)

11월은 선택의 달이다. 몇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다. 순간의 선택이 회비를 가진다. 80년생은 중대한 고민거리가 생긴다. 고전의 말씀에 따르라. 68년생 업무 실적이 저조해 명예가 실추된다. 원망하기 이전에 반성. 56년생 오 아니면 도가 될 순간. 하늘의 뜻에 맡겨라.



소(축, 丑)

정당한 일만이 성공한다. 비공식적인 계약이나 약속 피하도록. 73년생 매장전선이 원만치 않다.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 61년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계획한 일을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



호랑이(인, 寅)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움직여야 승통이 트인다. 74년생 시간이 걸린다고 조금해하면 안된다. 대기만성의 진리를 잊지 말도록. 62년생 자녀에게서 힘을 얻는다. 대중교통 이용이 유리하다. 50년생 하는 일에서 성과를 본다. 스포츠 관람으로 기분 전환.



토끼(묘, 卯)

열 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계속 전진하라. 미혼의 경우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놓고 다투게 된다. 초지일관 마음이 필요. 63년생 동료와 사소한 일로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 51년생 자동차 문제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양보하는 선에서 흥겨 해결하라.



용(진, 辰)

유쾌한 일이 별로 없다. 식욕부진에 빠질 수 있으니 꼭 자기 일어나라. 76년생 쓸데 없는 고집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손해를 초래한다. 64년생 새사업 고전이 예상되니 몇 개월 더 기다려라. 52년생 여행중 좋지 않은 일이 예상되니 출발을 늦추는 것이 좋겠다.



뱀(사, 巳)

가정 불화가 점점 깊어간다.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라. 77년생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본분으로 돌아올 때이다. 모두가 걱정한다. 65년생 진행중인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실패.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53년생 잘 아는 사람을 오히려 조심.



말(오, 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금씩 성장, 발전하는 사람이다. 78년생 미운 오리 새끼가 거울을 지나 백조가 되는 격. 계속 전진할 것. 66년생 상사가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는 것은 사람의 관심이다. 54년생 밖에서 큰 이익. 가족 앞으로 분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미, 未)

집을 떠나거나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있다. 떠남이 길하다. 유학 뜻을 품어온 학생은 유학문이 있으니 준비를 하라. 67년생 낮에 친구자간이나 동료간에 말다툼이 있으나 저녁에 화해한다. 55년생 집안에서는 기동이며 어려운 회사를 회생시키는 건인자 역할.



원숭이(신, 申)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면 길하다. 80년생 집에서 옛날 추억의 자료들을 들춰보고 즐거운 회상에 젖는다. 68년생 부부나 연인은 좋은 시간을 가지나 저녁 늦은 시간은 출하다. 56년생 아침에 자각을 놓고 나가서 애먹으나 생각지 못한 돈이 생긴다.



닭(유, 酉)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다. 남의 일에 간섭라 배려라 할 처지가 못 된다. 69년생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일을 만난다. 57년생 결정을 확실치 내려서 움직여야 금전적 손해가 없다. 주위 사람의 조언을 잘 들어야 흥함을 면하게 된다.



개(술, 戌)

어떤 일을 하든지 이득이 없고 나아가고 물러남이 결정되지 못하므로 속이 탄다. 성글은 이성 문제로 괴로움을 면하기 어렵다. 70년생 두 가지의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58년생 여행을 절대 삼가야한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답답한 상황을 맞는다.



돼지(해, 亥)

모든 일에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 신임을 얻을 수 있다. 71년생 처신을 잘하여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 들을 수 있다. 59년생 인내심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일단이 위기를 넘기면 탄탄대로다. 이성 문제만 주의하면 모든 일이 좋아질 수 있다.